

# GIST-기아, 미래 모빌리티 협력 시동

- 자율주행·센서 기반 군용 모빌리티 협력 방안 논의... 전략적 심포지엄 개최
-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위한 공동연구·실증·인재양성 연계 산학협력 모델 제시



▲ 4월 15일(수)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GIST와 기아 특수차량연구실 주요 관계자들이 《KIA-GIST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4월 15일(수)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기아 특수차량연구실(상무 박병석)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KIA-GIST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군용 기동장비의 지능화를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GIST 임기철 총장, 정성호 교학부총장, 김태영 기획처장, 기계로봇공학과 설재훈 학과장, 인공지능연구소 이규빈 소장, 기계로봇공학과 이재욱 교수, 차세대 에너지연구소 강홍규 부소장, R&D 혁신기획본부 정상호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또한, 기아 박병석 특수차량연구실장, 김두호 특수제품기획팀장, 허준녕 프로젝트 매니저, 정희택 특수체계설계팀장, 김강균 책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임기철 총장과 박병석 상무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태영 기획처장의 기관 현황 소개, 양 기관의 협력 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실증·인재양성을 아우르는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GIST R&D혁신기획본부 정상호 책임연구원은 AI 역량과 지역 산업 데이터를 결합해 모빌리티 분야의 제조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AX 모빌리티 공동연구소' 설립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및 GIST 캠퍼스를 미래차 기술 실증 공간(리빙랩·Living Lab)으로 활용 ▲지역 주도 대형 국책과제 공동 기획 등을 제안하며, 연구-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미래차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아 맞춤형 AI·모빌리티 교육과정 운영 ▲계약학과 개설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GIST 임기철 총장이《KIA-GIST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기아 김두호 특수제품기획팀장은 군용차 개발 패러다임을 내연기관 중심에서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군용 기동장비 자율주행 기술 동향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라이다(Lidar)\*, 카메라, 관성센서(IMU)\* 기반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 핵심 알고리즘과 차량 제어 기술을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실제 군 작전에 적용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과 기술 실증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GIST와의 협력이 기술 고도화와 적용 확산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레이저 빛을 발사한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와 형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센서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

\* **관성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가속과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과 자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차량의 위치 추정과 주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센서로 활용된다.

기아 박병석 특수차량연구실장은 **"GIST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IST 임기철 총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기술안보와 기술주권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반도체·모빌리티·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